則爲天下 矣。

節, 讀爲截。 , 讀爲僻。 , 與戮同。◎詩, 小雅節南山之篇。節, 截然高大貌。師尹, 周太師尹氏也。具, 俱也。 , 偏也。言在上者人所瞻仰, 不可不謹。若不能 矩而好惡徇於一己之偏, 則身弑國亡, 爲天下之大戮矣。

10-04. 시운: 「절피남산, 유석암암 。혁혁사윤, 민구이첨 。유국자불가이불신, 벽즉위천하륙의 。

절, 독위절。벽, 독위벽。육, 여륙동。◎시, 소아절남산지편。절, 절연고대모。사윤, 주태사윤씨야。구, 구야。벽, 편야。언재상자인소첨앙, 불가불근。약불능혈구이호오순어일기지편, 즉신시국망, 위천하지대륙의。

《시경》에 말하였다. 「우뚝 솟은 저 남산이여, 울퉁불퉁 바위가 쌓여 있구나! 빛나는 공적을 지닌 태사太師 윤공尹公이여, 백성이 모두 그대를 우러러본다네.」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삼가지 아니할 수 없으며,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면 천하가 그를 죽이게 될 것이다.

절節은 절截로 읽는다. 벽은 벽僻으로 읽는다. 육 은 육戮과 같다. ◎시는 《시경》의 〈소아小雅〉절남산節南山〉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절節은 깎아지른 듯이 높고 큰 모양이다. 사윤師尹은 주周나라의 태사太師 윤씨尹氏이다. 구具는 모두라는 뜻이다. 벽 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이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백성이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만약 혈구의 도를 실천할 줄 모르면서 좋아하고 미워함이 자기 한 몸의 편벽됨에 따르게 되면, 자신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며, 천하에 큰 살육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주】◎**태사太師:** 높은 벼슬 이름이다. ◎**윤공尹公:** 윤씨尹氏를 말하고 기록이 없어 이름은 알 수 없음. 시의 내용으로 보면 주나라 때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정사를 돌보는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고르게 하지 못하였고, 임금은 국사를 돌보지 않아 백성이 원망하는 노래의 내용이다. 이 시가 나온 시기를 두고 서주西周와 동주東周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하다.

10-05. 詩云: 「殷之未喪師, 克配上帝 。儀監于殷, 峻命不易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 。

喪, 去聲。儀, 詩作宜。峻, 詩作駿。易, 去聲。◎詩, 文王篇。師, 衆也。配, 對也。配上帝, 言其爲天下君, 而對乎上帝也。監, 視也。峻, 大也。不易, 言難保也。道, 言也。引詩而言此, 以結上文兩節之意。有天下者, 能存此心而不失, 則所以矩而與民同欲者, 自不能已矣。

10-05. 시운: 「은지미상사, 극배상제 。의감우은, 준명불이 。」도득중즉득국, 실중즉실국 。

상, 거성。의, 시작의。준, 시작준。이, 거성。◎시, 문왕편。사, 중야。배, 대야。배상제, 언기위천하군, 이대호상제야。감, 시야。준, 대야。불이, 언난보야。도, 언야。인시이언차, 이결상문양절지의。유천하자, 능존차심이부실, 즉소이혈구이여민동욕자, 자불능이의。

《시경》에 말하였다. 「은殷나라가 민심을 잃지 않았을 때는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 조화를 훌륭하게 이루었다네. 주周나라는 은나라의 의식과 제도를 귀감으로 삼았으나 천명을 보전함이 쉽지 않으리라.」 민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을 수 있고, 민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말이다.

상喪은 거성이다. 의儀는 《시경》에 의宜로 되어 있다. 준峻은 《시경》에 준駿으로 되어 있다. 이易는 거성이다. ◎시는 《시경》의 〈대아大雅〉문왕文王〉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사師는 민중의 지지를 뜻한다. 배配는 상대한다는 뜻이다. 상제上帝와 짝이 되었다는 것은 천하의 군주가 되어 상제와 상대하였다는 말이다. 감監은 본다는 뜻이다. 준峻은 크다는 뜻이다. 불이不易는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도道는 말한다는 뜻이다. 시를 인용하고 이와 같이 말하여 앞글 두 구절의 뜻을 결론지었다. 천하를 소유한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잘 보존하고 잃지 않으면 혈구의 도를 실천하여 백성과 하고자 하는 뜻이 같기 때문에 자연히 그 지위를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

10-06. 是故君子先愼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

先謹乎德, 承上文不可不謹而言。德, 卽所謂明德。有人, 謂得衆。有土, 謂得國。有國, 則不患無財用矣。

10-06. 시고군자선신호덕 。유덕차유인, 유인차유토, 유토차유재, 유재차유용 。

선근호덕, 승상문불가불근이언。덕, 즉소위명덕。유인, 위득중。유토, 위득국。유국, 즉불환무재용의。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먼저 자기의 덕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는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으며, 이러한 땅이 있으면 재물이 있고, 이러한 재물이 있으면 사용할 곳이 있다.

먼저 덕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앞글의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 이어서 말하였다. 덕德은 곧 밝은 덕을 말하는 것이다. 유인有人은 민중의 지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유토有土는 나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나라가 있으면 재물의 용도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성백효주】◎**선근호덕先謹乎德:** 원문에는 선신호덕先愼乎德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주자는 당시 송宋나라 효종孝宗의 휘諱를 피하여 뜻이 비슷한 근謹으로 바꿔 쓴 것이다. 불가불근不可不謹과 근독謹獨 역시 그러하다. ◎**민중民衆:**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말한다.

국문판 전산、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를 상시운영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ww.andongkwon.or.kr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 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 안동권씨대동세보의 화면이 열립니다.

● 항상 입록 · 등재 신청을 받습니다

① 이 족보는 항상 살아서 움직이며 언제든지 추가 등재와 입록이 가능합니다. 이 족보의 주기註記는 안동권씨인 각자의 작은 행장行狀 또는 약력略歷으로 운용되어 영원한 가족사家族史로 유전됩니다.
② 소정의 수단비, 즉 등재비와 함께 소정의 수단용지에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기재사항을 수정、증보 신청하시면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됩니다.
③ 각자의 생애에서 발생하는 출생、사망、거주、결혼、이혼、졸업、학위취득、직업、지위、직위、경력 등이 주요 사안별 기준에 따라 등재되어 각자의 간추린 개인사個人史가 망라됩니다.
④ 수시로 수단을 받아 신규 입록하거나 기록을 보충、변경 등을 하는 경우 연도말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씩 인터넷상에 업데이트된 원판이 올라가 운용됩니다.
⑤ 이처럼 추록、보완、변경된 내용은 나중에 대동보나 각종 파보를 발간할 때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 안동권씨 각급 문중별 파보派譜 · 계보系譜와 가승家乘도 발간해드립니다

① 안동권씨 한글판한자병기전산대동세보는 그 전산판이 완비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② 이 원판에 변동사항과 새로운 입록사항을 추가하여 뽑아내면 해당 계파의 파보나 계보 또는 가승이 됩니다.
③ 이렇게 계파보를 제작、발간할 경우 전체 전산원판에의 입록、등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산등록 수단비를 받지 않습니다.
④ 파보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소譜所를 설치、운영할 것이 없이 모든 일이 종보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므로 막대한 보소비용이 절감됩니다.
⑤ 수단만 잘 받아서 납단納單해 주시면 편제、입력、교열 인쇄、제작 및 발송까지를 일괄하여 종보사에서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온갖 번거로운 일이 없어집니다.
⑥ 이러한 방식으로 계파보를 발간할 경우 전자족보에도 실리고 책자로 된 족보도 나오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주식회사 안동권씨종보사

본사 :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1 태사묘 서재、760-120 전화 054)857-7714
서울분사 :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7호、110-044 전화 02)723-4480732-9139